

보도	배포시	배포	2024.9.10.(화)
----	-----	----	---------------

담당 부서	은행감독국 가계신용분석팀	책임자	국 장 정우현 (02-3145-8020)
		담당자	팀 장 안신원 (02-3145-8040)

## 은행장 간담회(9.10일) 주요 논의내용

### [ 은행장 발언 요지 ]

- 은행장들은 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하며, 자체 수립한 경영계획 내에서 가계대출이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하면서,
  - 각 은행의 가계대출 관리 상황과 리스크 수준 등에 따라 관리수준을 조절하는 등 자율적 노력을 해나갈 것을 다짐
- 먼저, 7~8월중 예상치 못한 가계대출 수요 급증으로 가계대출 속도조절이 어려웠던 일부 시중은행은 자체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밖에 없었다고 언급하면서
  - 대부분 은행이 공통적으로 다주택자(2주택자 이상) 등 투기수요로 보이는 대출에 대하여는 여신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하였으며,
  - 이미 가계대출 경영계획을 초과하여 관리가 시급한 일부 은행은 다른 은행들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언급
  - 갭투자에 활용될 수 있는 전세자금대출, 유주택자가 당장의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을 추가 구입하기 위한 대출 뿐 아니라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심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였음

- 다만, 이러한 은행들도 '실수요자 전담 심사팀'을 운영하여 충분한 상담과 면밀한 심사를 통해 선의의 고객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언급

- 연초부터 가계대출을 관리해 온 나머지 은행들은 상대적으로 **완화된** 기준을 운영 중이며,

- 경영계획내 **대출여력** 범위 내에서 **실수요자 중심** 자금 공급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

- 한편, 지방은행들은 시중은행의 관리에 따른 **풍선효과** 여부를 모니터링하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며,

- 수도권과 달리 지방 부동산경기는 부진한 상황임을 감안하여, 지역 내 실수요자 위주로 자금을 공급할 예정임을 언급

- 인터넷전문은행들은 연초부터 증가속도를 완만하게 조절하고 있으며, 중저신용자 포용금융 지원도 계속할 예정이라고 언급

- 은행들은 실수요와 투기수요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만큼 심사기준은 은행별로 상이할 수 밖에 없으나

- 여신심사 강화 관련 대출수요자의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,

-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실수요 구분 관련 **심사사례\***를 발굴·공유하여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을 논의

\* 예) 1주택 갈아타기 차주의 경우 기존주택 매도 계약서 확인을 통해 예외를 인정

- 아울러, 신규 분양주택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도 여전히 상당수 은행에서 취급이 가능하므로,
  - 대출절벽 등 대출수요자 불편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
- 또한, 모든 은행들은 창구 혼선을 최소화 하기 위해 직원 교육 및 대고객 사전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며,
- 매월 대출 신청물량, 상환 예측물량 등을 추정하여 연말까지 안정적으로 신규자금을 공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

#### [ 금감원장 마무리 발언 ]

- 이복현 금감원장은 은행권의 자발적·자율적인 노력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은행권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적극 지원 하겠다고 하면서,
- 특정 차주군에 대해 모든 은행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보다는 은행별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대응해 주기를 당부
- 아울러 가계대출 관리는 개별은행의 단기적인 관리 차원이 아니라 거시경제, 장기적 시계에서 은행권이 자율적 노력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<http://www.fss.or.kr>)